

오전 8시 30분, 기숙사 룸메이트의 세면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 전날 등산을 해서 피곤한 감이 남아있었는지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식당의 아침 식사 시간은 8시 30분부터였기 때문에 씻는건 나중에 미루고 일단 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었다. 아침 메뉴는 순두부찌개, 명태조림, 콩나물무침. 역시나 뻥한 메뉴와 뻥한 맛이였다. 명태는 국으로 끓여 먹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럭저럭 10분 만에 식판을 비우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양치를 하려고 교정기를 빼니 머리카락 두 가닥이 끼어있는걸 보고 기겁을 했다. 밥을 먹기 위해 주머니에 잠깐 넣어둔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기분이 꺼림칙하지만, 삼키지 않고 뒤늦게라도 떼낼 수 있어서 다행이였다. 양치와 세수를 마치고 거울 속 모습을 보는 것만큼 하루를 시작할 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다. 다른 거울로 볼 때 못생겨서 문제지만. 간편한 트레이닝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약속 시간인 9시 15분 5분 전에 출발을 해서 뛰어가야만 했다. 학교 기숙사라고 늦장을 피우다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는다. 간신히 15분에 도착하니, 생활 스터디 그룹의 장훈 형과 우경이가 보였다. 우경이는 파마한 머리를 폼뽀했다고 했는데, 장훈 형과 내가 예전에 파마했던 머리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하니 약간은 실망한 눈치였다. 근데 그게 사실인걸 어떡하겠는가? 동훈이는 장소를 헛갈려서 지각을 하고 말았다. 장훈 형이 이번에는 특별히 지각 벌금을 받지 않고 봐주었다. 평소에 무단 결석이 잦아 벌금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았다. 1시에 책탑 앞에서 만나기로 정하고 각자 공부를 하러 이동했다. 9시 30분에 도서관 열람실로 올라가니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나와 동훈이를 포함해서 5명 정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책을 꺼냈다. 방한림전이라는 책을 읽고, 단어 시험에 나올 영어 단어를 외우고, 국어학개론 단원을 연습, 복습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표였는데, 영어 단어를 받아 적고 대충 훑어보고 방한림전을 읽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일어난 때가 12시쯤이었으니, 한 두 시간 정도를 잤던 것 같다. 한숨을 쉬면서 방한림전을 마저 다 읽으니 12시 50분, 점심을 먹을 시간이 다가왔다. 어떤 메뉴를 먹을지 기대하며 계단을 내려가다가 동훈이가 전화를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하면서 와이파이를 잡고 있었다.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어서 그런지 연신 카톡을 했다. 도서관 문 앞을 나서자 닭살 돋는 단어를 쓰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듣고 있는 내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나도 빨리 연애를 하던가 해야지 부러워서 못 살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동훈이가 책탑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여자친구와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자친구가 즐기기 위한 관계를 맺는 친구에게 할 조언을 동훈이에게 구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상관없지 않겠냐고 말하자, 자신이 그 친구라면 그런 말을 할 것이냐고 화를 냈다는 것. 역시 여자는 속을 알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런 식으로 화를 내다니? 이성교제에 대한 글에서 얻은 지식을 동원하여, 동훈이에게 여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다. 책탑에서 장훈 형을 만나서 흥부 부대찌개를 가기로 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서 5,500원 짜리 보쌈 정식을 먹으러 갔다. 역시 기숙사보다 식당 밥이 훨씬 맛있다.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보쌈은 흔하지 않기도 하고. 식사를 하다가 동훈이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다. 이번에는 그 즐기기 위한 관계를 맺는 친구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혹시 여자친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졌다. 장훈 형은 일단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믿음이 깨지면 그때부터 의심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였다. 확실히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아쉬운 쪽이 의심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식사를 마치고 다이소에서 치약을 산 뒤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학교 길을 오르면서 정말 화창한 날씨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길을 오를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라며 고민하기도 했다. 슬슬 교통비 환급을 받으며 셔틀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것 같다. 저녁은 6시에 배달시켜 먹기로 약속하고 도서관에 들어갔다. 도서관 열람실에 도착하니 13시 55분,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같고, 느리게 가는 것도 같고.. 국어 학개론 복습을 하다가 트위터를 켜봤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타임라인에 트윗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웃기는 트윗을 몇 개 적고 있는데, 기환 형이 카톡으로 말을 걸었다. 내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하였는데, 바빠서 대답할 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것과 관심이 없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할 수 없이 내 본심을 말했다. 형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자주 연락할 사람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편한 관계로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은 그것이 아니었다. 알아차리고는 있었지만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었기에 구차한 말은 하지 않았다. 형은 격앙된 표현을 써가면서 말을 이어갔지만, 마지막에는 사과하면서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했다. 관계를 끊을 때 쓰는 최악의 표현이 그건데.. 갑자기 존댓말까지 쓰라고 하니 정나미가 툭 떨어졌다. 동훈이 전화 통화를 듣고 연애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과 어울리다가 데인 꼴이 되었다. 앞으로는 주의해야지. 저녁 시간 30분 전, 무엇을 먹을지 단체 카톡으로 회의하다가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먹기로 결정했다. 저녁을 마치고 기숙사에 올라갈 생각으로 가방을 꾸리고 약속 장소인 산학협력관 4층으로 갔다. 5시 55분에 도착했는데, 장훈 형과 동훈이는 이미 올라와있었다. 동훈이는 음식을 기다리면서 여자친구가 두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그만 좀 해라고 야박을 하고 싶었지만 연애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다. 배달 온 짜장면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짬뽕을 먹어서 약간 소외감이 들었다. 게다가 배달시킨 중국집은 짬뽕으로 유명한 사해방.. 식사를 끝낸 뒤에는 커피를 마시며 대학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편입을 준비하는 나로서는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된다. 커피까지 맛있게 마시고 스터디 그룹과 작별 인사를 한 뒤 기숙사로 올라갔다. 텅 빈 방에 돌아오니 마음이 편해졌다. 재미없는 토익 영단어를 계속해서 보다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컴퓨터로 음악을 들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웹 서핑을 하니 공부로 얻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트위터에서는 윤창중의 성추행과, 요즘 유행하는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타임라인을 도배하고 있었다. 윤창중은 그렇다쳐도, <진격의 거인>은 슬슬 지겹다. 언제쯤 이 유행이 사라질까 궁금하다. 동성애자 지인들과 최근 근황에 대해 멘션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하다보니 어느새 자정이 다 되어 갔다. 11시 20분에 룸메이트가 자신에게 달려붙는 여자아이를 달래느라 지각을 할 것 같

다는 카톡을 보냈다. 서면에서 여기까지 지하철로는 한 시간이 걸리니 알아서 빨리 오라고 답장했다. 유튜브로 뮤직 비디오를 보고 있다가 12시 15분에 룸메이트가 들어오는 문 소리가 났다. 결국은 지각한 것이었다. 자기가 여자아이를 어떻게 상대했는지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친구는 너무 말이 많아서 탈이다.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으니, 룸메이트의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승낙은 했으나, 막상 가려고 하니 석연치 않다. 그렇게 코드가 맞는 친구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여름 방학 동안 기숙사에 머물기로 결정은 했지만 계속 이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써야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황금 같은 주말이 지나가고 벌써 월요일이 다가왔다. 내일 단어 시험을 제대로 쳐서 벌금을 조금만 내야 할텐데 걱정이 크다. 그래도 이미 알고 있던 단어도 많으니 잘 보겠지?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